화려한 건물의 기억과 함께 떠오른 건 마법사들의 연례 행사 ‘에브릴 무도회’였다. 레니에스 성일의 바로 다음 날, 에브릴 청사의 큰 무도회장에서는 전국의 마법사들을 초대한 성대한 연회가 열린다. 제국의 마법사라면 4년간 1번은 필수적으로 얼굴을 비춰야 하는 600년 전통의 행사이기도 했다. 일레인이 차지하고 있는 몸의 주인인 밀라 또한 마법사였고, 그 말인 즉…

“그러고보니 나는 올해 에브릴 무도회에 참여해야해. 지난 3년간 이래저래 바빠서 코빼기도 못 비췄거든.”

“올해는 빠질 수 없겠어요.”

“그렇지 뭐. 무도회니 뭐니… 마법사들을 관리하려는 수단이면서 괜히 성대하게 포장한다니까.”

소꿉친구가 툭 내뱉는 말에 깜짝 놀라며 밀라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20년 도 전, 언니와 시간을 보내던 바랜 티타임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연회로 포장한 이 행사는 대대로 황제와 황가가 변칙적 존재인 마법사들을 매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사였다. 아무도 그러한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생전 악녀 엘레니아는 동생의 앞에서 그리 주장했었다. 그리고 현재 눈 앞에 앉아있는 실리카 또한 동일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말 조심하세요.”

저도 모르게 까칠한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실리카 또한 제가 경솔했음을 인정하며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3번 얼굴을 비추지 않았으니 올해는 꼭 얼굴을 비춰야 해.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런 쪽의 기억은 남아있네? 다행이야.”

“에브릴 무도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설마 저도…?”

“그으렇지. 너도 나도 3년 전이 마지막 출석이었어. 그때는 그… …”

실리카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탁자 위를 톡톡 치는 행동과 도르륵 눈을 굴리는 행동에서 강한 껄끄러움이 묻어났다.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탓에 무도회도 기대한다, 따위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밀라는 굉장히 의아한 시선으로 눈 앞의 친구를 보았다.

“뭐, 썩 즐겁지 않았었지.”  
“의외네요. 연회를 나서서 찾아 다니실 줄 알았는데.”

“연회는 좋지만…! 사실 무도회니 뭐니 해도 정식 마법사로서 참석하는 거잖아. 일 하는 기분이라고. 할 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입을 놀려대는지 이상한 소문도 많이 오가고.”

“… …”

“나는 즐거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남의 뒷말을 하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 부풀리거나 하는 그런… 음습한 일은 영 성미에 안 맞아서.”

철없는 소꿉친구가 아닌, 제법 사람다운 말을 하는 실리카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면 첫 만남도 친구가 아닌 적이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당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밀라는 생각했다. 일레인이던 시절의 그녀가 너무 오랜 기간 친구라는 존재를 옆에 두지 못했던 탓일까, 혹은 무의식에 남아있는 진짜 밀라의 잔재 때문일까. 어느 쪽이든 좋았다. 밀라는 능청맞고 시끄럽지만 올바른 마음씨를 가진 이 젊은 친구가 싫지 않았다.

실리카가 입을 다물자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찾아왔다. 밀라는 하녀 한 명이 가져다준 티포트를 들어 자신의 잔과 친구의 잔을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워주었다. 심란한 표정으로 향이 괜찮은 차를 홀짝거리던 실리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밀라, 진짜 기억이 없는 거 맞지?”

“맹세컨대 사실이랍니다.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실리카가 보여준 사진의 어느 것 하나도 확실히 기억 나는 부분이 없는 걸요.”

“그래, 그렇구나. 그랬지.”

밀라의 대답을 들은 실리카는 슬쩍 손을 뻗어 친구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이래저래 복잡한 얼굴이었다.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번 에브릴 무도회는 나랑 같이 참여하자. 어차피 빠질 수 없는 행사라면 내가 옆에서 너를 봐야지 안심이 될 거 같아. 거… 참여 명단에 사인하고 춤 한 번 추고 빨리 나오자고.”

“함께 해줄 파트너가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3살짜리 꼬마 아가씨 취급인가요? 전 괜찮답니다. 어차피 벽만 지키다가 나올 생각이었던지라. 게다가 기억을 잃은 게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험담을 들을 정도의 흠은 아니니까요.”

“아니,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나랑 같이 가주면 안돼? 저번 에브릴 무도회는 다른 사람… …이랑 갔잖아. 이번에는 친구랑 어울려주면 기쁠텐데.”

소꿉친구의 언행은 어딘가 쩔쩔 매는 듯한 강아지와 닮아 있었다. 에브릴 무도회에 대한 떨떠름한 반응과 소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굳이 무도회 때 함께 따라가 붙어 있겠다고 걱정하며 자처하는 모습까지.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터였다. 3년 전에는 실리카가 아닌 타인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었던 밀라 레첸스. 파혼 당한 밀라 레첸스. 밀라 레첸스가 남긴 엉망진창의 기록. 마음의 병을 얻은 밀라 레첸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밀라 레첸스에 대한 무언가의 뒷말과 나쁜 소문이 오가는 모양인가보네요. 밀라의 친한 친구라고 알려진 실리카가 알 정도의 소문이라니…’

그녀가 정보로 추측하건데 밀라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요 몇 년 사이 나오게 된 무언가인 듯하였다. 오히려 궁금할 지경이라고 현재의 밀라는 담담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험담이나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익숙해져 있으며 사람들의 악의에도 꿋꿋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려왔다. 악녀의 동생이자 벨칸스로서 살아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세간에서 어떤 소문이 돌던, 어떤 취급을 받던. 육체적 고통과 목숨의 위협만 없다면 충분히 견딜 자신이 있었다.

일레인이 밀라의 몸으로 눈을 뜬 이후 단 한 번도 저택의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라일라는 진심으로 밀라를 위했으나 절대로 외출을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일라와 실리카 두 사람은 밀라를 지키고 싶어했다. 그것은 아마도 진짜 밀라가 가졌을 ‘마음의 병’을 초래한 원인일지도 몰랐다. 현재의 밀라는 스스로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파편적인 정보와 눈치로 상황을 파악할 뿐. 이래서야 일레인의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착잡했다. 일레인의 죽음 이후로 다시 깨어난 몸이 이런 의문투성이의 여자라니! 정말 자신의 인생은 마가 낀게 틀림없다며 밀라는 속으로만 투덜거렸다.

그러나 불만을 가져도 현재의 사실이 변하지는 않을 터였다. 변하지 않을 일이라면 두 사람의 뒤에 숨어서 몸을 사려보아야 그녀에게 떨어질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다. 밀라의 몸으로 깨어난 후 일레인은 한동안 동화 속에서 사는 기분이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허나 요 얼마간의 대화로 이제는 꿈 같은 감각에서 깨어나 완전히 현실을 걷고 있었다. 어차피 밀라의 몸에서 밀라로서 사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그녀 자신과 연관된 일이기도 했다. 직접 나서서 밀라의 소문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하여 그녀는 우선 실리카의 제안부터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없는 소꿉친구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을 과보호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밀라는 분위기를 환기할 겸 괜스레 가벼운 어조로 받아쳤다.

“실리카는 함께 참여할 약혼자나 연인분은 없으신가요? 귀족들은 보통 성년이 되기 전후로 많이들 약혼을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

“음, 그렇죠? 있더라도 마법사가 아닌 일반 분이거나 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다 큰 소꿉친구와 무도회에 참여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실 거랍니다.”

그 말에 실리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제 머리카락의 끝을 만지작거렸다. 세련된 모양새로 묶어 둔 긴 마룬색의 머리카락이 그의 손에서 가볍게 튕겨 탁자 위로 흩어졌다. 실리카는 왼손으로 눈가를 한 번 문지르며 자신 없이 대답했다.

“약혼자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렇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역시 실리카의 제안은 거절…”

거절한다, 하는 밀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리카가 말을 잘랐다. 그가 제 소꿉친구의 말을 자르는 건 굉장히 드문 행동이었다.

“아니 끝까지 좀 들어줘라. 나 이미 파혼당했으니까?”

뜻밖의 정보에 밀라는 잠시 멍청하게 실리카를 바라만 보았다. 실리카는 시선을 피하며 어수선하게 찻잔만 들었다가 내렸다.

“어, 언제요…?”

“아직 1년 덜 되었어. 아, 됐어. 기억해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일순간 진짜 밀라의 일기 내용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일기에 의하면 밀라 레첸스도 파혼을 당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었다. 아직 연결 고리 하나 없는 별개의 두 일이나 밀라는 어쩐지 두 파혼 사이에 무언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밀라는 실리카가 다른 헛소리로 주제를 바꾸기 전 재빨리 먼저 질문을 던졌다.

“어쩌다가… 파혼을 했나 물어봐도 될까요?”

단도직입 그자체인 밀라의 질문에 실리카는 입을 삐죽 내밀며 시선을 피했다. 자세히 말해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사고를 쳤어.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썩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잖아.”

“음… 사정을 알면 제가 불편해질 거라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그 말에 실리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전의 침묵과는 다른, 불편한 침묵이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실리카는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특유의 살가운 태도로 살랑이며 간드러지게 다시 부탁하였다.

“나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일 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안돼? 응?”

“실리카.”

밀라는 부드럽게 그를 달래어 거절하려 하였다. 다음 말을 듣기 전까지는. 실리카는 두 손을 모으고 몸을 낮추어 꼬리치는 고양이처럼 제 소꿉친구를 흘긋 올려다보았다.

“귀찮게 하지 않을게.”

“… …”

“대단하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회 도중 같이 어울려 달라는 정도니까…!”

안될까? 하고 사정사정하는 실리카의 시선에,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 물에 녹은 종이처럼 마음이 약해졌다. 이 친구는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밀라를 챙겨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문득 몸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타인이 받았어야 할 호의를 가로챈 것만 같은 불편함이었다. 입을 다문 채 답을 하지 않는 밀라의 모습에 실리카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가벼운 태도를 내려 둔 그녀는 사뭇 진지했다.

“네 기억이나 소문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라면… 에브릴 무도회 전까지 천천히 말해줄게. 어떤 이야기가 떠도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계속 고민했거든. 나는 그냥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숨긴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젊으니까. 바깥과 단절된 채 평생 별장에만 박혀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 자연스럽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

실리카는 앨범을 덮고는 다소 뾰루퉁한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라일라 씨는 밀, 네가 너무나도 걱정되니까 어떤 기억을 되찾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말이야.”

“… …”

“나도 네가 걱정돼. 라일라 씨의 마음이 이해돼. 그러니까 계속 부탁하는 거야. 이번 연회는 나랑 같이 가자. 밀,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너를 도와주고 싶어.”